

이건희 컬렉션 중 '피카소 도예' 107점 ACC서 만난다

이건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展...9월29일까지 ACC복합전시 4관

여인·동물·올빼미·투우 등 주제별 9개 섹션 구성
공간 활용 작품 부각·해설 더해 관람 편의성 제고
연보 시각자료·다큐멘터리 영화·포스터 감상엔 '담'

거대한 신전을 연상케 하는 백색 전시장에 100여점의 각양각색 도자들이 모습을 보인다. 여인 형상을 한 물병, 새 그림이 그려진 주전자, 사람 얼굴로 가득 찬 접시까지. 순수함과 독창성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즐비하다. 독특한 조형미를 뽐내는 피카소의 다양한 도예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오는 9월2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 4관에서 열리는 이진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 전시다. 이번 전시는 ACC가 국립현대미술관(MCA)과 함께 마련한 순회전으로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 이은 두 번째 전시다.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피카소 도예 작품은 2021년 고 이진희 삼성 회장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피카소 도자 작품 12점 중 107점이다. 여인, 신화, 동물, 올빼미, 얼굴, 투우 등 9개 주제로 섹션이 구성됐다. 이번 광주 피카소 도예전 전시 연출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넓은 공간을 활용, 현대식 신전과 같은 구조물 위 작품 하나하나가 돋보이게 배치돼 관람 편의성을 높였다. 피카소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는 '여인'이다. 가장 먼저 마주한 '여인' 섹션에서는 그의 뮤즈인 자클린 로크를 모델로 한 물병과 화병, 도조 작품들을 전시 중이다.



'큰 새와 검은 얼굴'

물고기, 염소 등 작업실에서 키운 다양한 동물을 담은 도자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특히 피카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올빼미'에 특별한 애정을 지녔는데, '여인의 얼굴을 한 올빼미', '여인 올



'여인 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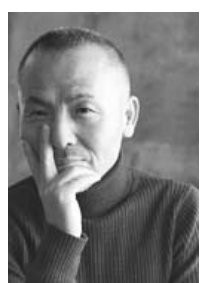
<ACC 제공>

빼미' 물병 등 작품에서 그러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전체 전시작 가운데 49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작품은 '얼굴'을 주제로 한 도자다. 아프리카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피카소는

'아프리카 가면'에서 영감을 받아 기하학적이고 상징적인 조형의 얼굴을 도자로 표현해냈다. '투우'를 주제로 한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그중 1950년에 제작된 '투우와 사람들'은 원형 투우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는데, 접시가 갖는 미학적 가치를 더욱 극대화한 작품이다. 이밖에도 전시장에서는 피카소의 화풍과 도예작업의 흐름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연보 시각 자료와 피카소의 도예 작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피카소가 스케치한 포스터 등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및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방문을 고려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 해설도 전시장 곳곳에 배치됐다. 이강현 전담장은 "'피카소 도예전'은 지역 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우수한 콘텐츠를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라며 "독특한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피카소 도예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구름이란 무엇이기엔 있을 리 없는 것을 느끼는가?

강우의 개념(生成)



나에게 호기심은 다른 세계로 가는 자양분이 돼서 작업을 더 낫게 만들어 가는 요소가 아닐까? 이진희 왜 이렇게 되지? 왜 저렇지! 근데 그게 세상의 모든 사물 또는 에너지, 그다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 이런 데까지 뭐라 그럴까? 내가 살면서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걸 알 때, 사실은 다 호기심과 질문에서 출발한 거로 생각한다. 그림 그리기는 일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하루아침에 깜짝 놀랄만한 뭔가 그려내는 건 불가능하다. 창작은 축적의 결과물로 호기심과 질문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 형태로 내 안에 축적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관건은 이 모든 축적의 산물을 어떻게 심플하게 시각화시킬 수 있느냐. 2000년 광주비엔날레 당시 구름을 메타포로 '추상적인 요소를 구상으로' 그렸다면, 23년이 지난 지금 '마음산책'을 통해 삶의 리얼함을 추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세상 모든 행위는 늘 변하여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어찌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이를 오가는 변증법적 질문의 소산이다. 하늘을 가르며 이 세상을 아는 것 같은 표정으로 마음의 문을 넘어와 영글영글 구름이 내 곁에 앉는다. 그럴 때면 은밀한 감성적인 상상력은 서로 대화하며 춤을 춘다. 아주 신비로운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세계관, 그것이 바로 작품을 만들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구름에서 마음으로



'순수형태-생성(生成)'

가는 여정도 그랬고, 마음과 구름이 동일 선상에 한 화면에서 표현되는 것도 어찌 보면 축적의 산물이다. 삶이 쌓여 추상이 될 때, 감정이란 무엇이기엔 구름과 마음을 동일한 것으로 느끼게 하는가? 내 존재 자체가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인동에서 회화강연>

"ACC 어린이 해설사 도전하세요"

오는 29일까지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9일까지 'ACC 어린이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ACC 어린이 해설사' 프로그램은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전당 일대 및 어린이장작실 등에서 운영된다. 어린이 눈높이에서 바라본 ACC의 이야기를 또래 관람객에게 설명해줌으로써 전당의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예술 분야 직업을 탐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 교육은 ACC 여러 공간을 중심으로 ▲투어해설 교육 ▲해설대본 작성법 ▲해설 실습교육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학생은 전문 강사의 시나리오 작성 교육과 ACC 투어해설사가 지도하는 현장 해설 실습교육도 받는다.



특히 교육이 수료한 어린이는 9월부터 12월까지 'ACC 어린이 탐험대' 프로그램 등 어린이문화원과 문화조원 전시 현장에서 어린이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다. 활동 시간에 한해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ACC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생 5-6학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10명 내외의 어린이를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김선숙 ACC재단 사장은 "어린이들이 관람객들과 문화예술로 소통하며 보다 주도적이고 사회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염색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제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을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